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야권 통합은?

대부분 호남 기득권 양보 동의 안해 당 쇠신위해선 젊은 인재 영입 필요

민노 김선동 “호남 경선은 민주 기득권 고집”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정파등록제를 근간으로 하는 ‘야권대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중통합’이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가 지역의원 20명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을 보였으며, 당 쇠신을 위해서는 젊은 인재 영입과 공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의원들은 순천 무공천과 같은 일방적인 호남 기득권 양보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으며, 최근 일각에서 거론되는 ‘안철수 신당’ 출현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야권통합=박상천 의원은 “정과 등록제 정당”은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 최인기 의원은 “현실적으로 강령과 정당정책이 다른 상황에서 대통합은 불가능하다”, 김동철 의원은 “정체성 차이가 엄청난 상태에서의 대통합은 불가하며 국민에게 감동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성곤 의원은 “더디지만 성과를 낼 것”, 김영진 의원은 “여러 난

관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뤄질 것”, 이낙연 의원은 “각 정파가 찬성하면 가능할 것”, 김영록 의원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합 실패 시 대안으로 혁신과 통합 등과의 ‘중통합’에 대해 김효석 의원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답하는 등 대부분 긍정적이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박지원 의원은 “우선 당내 전대 후에 새 지도부가 통합과 연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윤석 의원은 “중통합”도 고려대상이지만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고, 박주선 의원은 “통합은 정당 간에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개인이나 명망가는 영입이나 임당의 대상”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당 쇠신=당 쇠신을 위한 상징적 조치에 대한 질문에 박지원 의원은 “젊은 피를 수혈, 공천 보장 또는 비례대표 배려”, 김재균 의원은 “20~40대에 어필하는 인재영입과 시스템 구축”, 조영택 의원은 “상징성 있고 국민신뢰가 있는 신진인사 영입”, 김

영록 의원은 “젊은 인재 영입”을 각각 주장했다.

최인기 의원은 “생활정치를 통한 민생행보를 강화하는 등 정당정치 신뢰 회복”, 김동철 의원은 “인물·정책·비전 등 3대 내부 혁신”, 강기정 의원은 “당의 운영·시스템·공천 등에서 젊어질 것”, 이용섭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제도 도입”을 들었다.

또 우윤근·장병완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민심을 반영하는 지도부 구성을 해법으로 꼽았고, 박상천 의원은 “중도진보노선”을 분명히 하고 정책결정과정의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시했다.

◇호남 기득권 양보=순천 무공천 등과 같은 호남기득권 양보론에 대해 대부분 의원들은 큰 반감을 보였다. 대신, 야권 단일화 방법으로 10·26 서울시장 후보 경선과 같은 방식을 선호했다.

그 이유로 “산술적 통합·연대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경쟁방식”(박지원), “당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김성곤), “민주주의의 훼손과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김영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강기정 의원은 “정당의 활동과 당원이 부정되는 순천방식이나 서

울시장경선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두 방법 모두를 반대했다.

또 박주선 의원은 “역대 총선에서 호남은 50~60%의 인물교체가 유권자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호남 기득권이 없다”, 김동철 의원은 “호남을 일방적인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 반대한다”며 ‘호남 기득권’ 주장 자체에 부정적이었다.

다만, 이윤석 의원은 “무공천 방식이나 후보경선 방식이나, 국민이 동의한다면 어떠한 방식이든 동의한다”, 유선호 의원은 “소수 정파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략공천과 서울시장 선출방식을 적절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노당 김선동 의원은 “호남에서 경선은 민주당 기득권 양보가 아니라 기득권 고집이다”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신당=상당수 의원들은 안철수 신당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김영진 의원은 “금년말 이내에 유권자의 끊임없는 개혁요구분출로 마침내 개혁신당이 출범할 것”, 최인기 의원은 “배제할 수 없다”, 김성곤 의원은 “가능성 있을 것으로 보나 범야권과 힘을 합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방된 무등산 정상에서 등산객들이 지왕봉을 배경삼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무등산 정상 개방행사에는 3만여명의 시민들이 몰려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3만여 시민 무등산 정상 즐겼다

올들어 두번째 개방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방된 무등산 정상에 3만여명의 시민이 몰렸다.

광주시는 지난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등산 정상인 해발 1187m의 천왕봉 아래 지왕봉과 인왕봉 주변을 일반시민에게 개방했다. 이번 개방은 지난 5월14일 45년 만에 일반인을 출입을 허락한 이후 두 번째다.

개방시간인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무등산 정상에 3만여명의 등산객이 몰렸으며, 특히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무등산 정상에 장물재까지 수km의 등산로에 형형색색의 등산복을 입은 인산이 형성되는 장관이 연출됐다.

등산객들은 서석대에서 신분확인을 거쳐 군부대 후문을 통해 정상에 올랐으며, 지왕봉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전망데크에서 단풍을 관망하는 등 늦가을을 즐겼다.

강은태 광주시장은 정상에서 인사말을 통해 “무등산에 대한 시민들의 사랑과,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무등산 정상이 개방됐다”며 “앞으로 군부대와 협력을 통해 개방기회를 늘려가는 것은 물론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과 입석대와 서석대 등 주상절리대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잘 이뤄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이날 정상 개방에는 광주시산악연맹(회장 최경주) 임원들과 산악 신약구조대 및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위원 70여명이 시민들의 안전 등반을 위한 도우미로 나서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질서 유지와 안전 산행을 도왔다. 광주시산악연맹은 지난 5월 정

상 개방 때도 6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바 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무등산 국립공원 추진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발주, 6개월 동안 지질 및 식생, 야생동물 분포, 자연자원, 경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민주당 진로·통합 일정 공개하라”

광주·전남 국회의원 16명 여의도 회동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난 28일 여의도에서 회동을 갖고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에 민주당의 진로와 통합에 대한 일정 공개를 요구하는 등 정치적 목소리를 높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역의원들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회동을 갖고 사안에 따라 공동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각종 논의 구조에 상

당한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30일 최인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이뤄진 회동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전당대회를 포함한 민주당의 진로와 통합 등의 일정 공개 ▲야권통합 과정에서 국민적 명분과 민주당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는 원칙과 절차 등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야권통합

에 전향적 자세로 참여하는 한편, 내년 국고 예산 확보 등 지역 현안 사업에 공조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회동을 갖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는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19명 가운데 김영진, 이윤석, 김효석 의원 등을 제외하고 16명이 참석했다.

이처럼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규모로 회동에 참석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대 통합 및 연대에 따른 호남 기득권 양

보 논란 등으로 정치적 유동성이 짙어졌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개최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당 쇠신 방안 마련, 인재 영입 등에도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에 상당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을 마친 최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구 사항을 단일 손 대표에 전달했으며 손 대표도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며 “무엇보다도 야권통합과 연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분과 원칙(룰)이 전제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Fujixerox featuring a large '100%' graphic and the text '고객만족도 1위의 감동은 계속됩니다'.

Advertisement for Fujixerox '11년 연속 복사기 부문 고객만족도 1위 기념 고객 감동 이벤트' with details on event content, dates, and prizes.